

# 방탈출 카페·고시원 등 600여곳 안전대진단

광주시 12월 13일까지

화재 취약·청소년 유해시설

전문가와 시민관찰단 참여

광주시는 14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광주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대진단 점검 대상은 ▲겨울철 화재 취약 시설인 전통시장과 고시원 ▲신종자유업, 청소년게이밍제공업으로 등록돼 인·허가부서 관리 및 안전점검에서 제외된 안전사각지대 사업장인 방 탈출카페, 코인노래방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미조치한 안전무관심 다중이용시설 등 600여 곳이다.

광주시는 방 탈출 카페 13곳 모두와 사업장 규모가 큰 코인노래방, 고시원, 전통시장을 표본 점검하고, 자치구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방 탈출카페는 비밀통로 등을 설치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잠겨있는 방에서 이용자들이 탈출하는 놀이공간이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법상 미비로 소방교육, 소방점검, 소방시설 설치 등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밖의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인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만, 업주가 노래연습장 또는 청소년게이밍제공업으로 선택해 등록할 수 있고, 청소년게이밍제공업으로 등록된 코인노래방은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과 상무지구 클럽붕괴 사고 이후 시행된 특별점검에서 제외돼 그동안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시는 자유업인 방 탈출카페에 대해서는 건축·소방·전기 등 민간합동전문가들과 함께 건축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등 건축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시설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해 점검한다.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시설점검과 동

시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함께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과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관찰단을 점검에 참여시켜 모니터링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시설로 선정해 위험요소를 추적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안전대진단은 2018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가을철 수확여행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홍남순 변호사 13주기 추모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대부 홍남순 변호사 제1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박석무 기념사업회 이사장, 유가족, 민주인사 등과 묘역을 돌아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1963년 동구 공동 가옥에 사무실을 열고 양심수 변론을 맡는 등 인권변호사 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

동구 최우수단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광주시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243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정분석은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재정현황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평가한다.

동구는 14개 지표 항목 중 8개 지표가 동종단체 및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의 흑자규모를 측정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9.59%로 동종단체 평균 6.1%, 전국 평균 3.55%보다 높았다.

경상수지비율은 95.1%, 통합유동부채비율은 6.25%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도 동종단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는 출자출연금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 사전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사업예산 낭비를 인한 재정 부담을 적극 예방한 점 등이 꼽혔다.

앞서 동구는 지난 7월 지방재정확대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kimyh@



서구 경로당 유희공간 활용 협약 광주시 서구는 최근 경로당 2층 유희공간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관내 14개 경로당과 협약을 맺고 경로당의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민 소통공간, 마을 커뮤니티 공간, 마을 카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광산구, 생활SOC복합화로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비아동 노인복합시설 잇단 유치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송정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비롯해 비아동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신장동 '장애인회관 복합시설'을 잇달아 유치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

광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제출해 국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자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들을 집적한 형태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

로, 전국 지자체들의 사업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광산구는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지역공동체 거점 확보, 세대별 문화수요 충족, 구도심 활력 증진 등 성과를 낸다는 계획을 제출해 이번 공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건립될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6,970㎡ 규모로 건립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 문화 공간 등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산구는 비아동에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신장동에 '장애인회관 복합시설'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들어선다. 비아동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은 350억원 규모로 세워져 노인복합시설과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으로 쓰일 예

정이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그동안 광주 서부권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어르신과 주민의 공동 이용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설립 요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장동 장애인회관 복합시설은 290억원 규모로 지어져 장애인회관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선7기 들어 광산구에 생활SOC추진단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며 내실 있는 준비를 해온 것이 잇단 생활SOC복합화사업 유치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본다"라며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더 두텁게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

광주시는 2019년도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14일부터 11월15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4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광주 소재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다.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발생 이자 6개월분(2019년 7-12월 발생이자)을 지원한다.

접수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으로 하고, 접수 후 주민등록초본 1부를 기한 내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시행한다. 2019년 1학기에는 1081명에게 8100여 만원을 지원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1일 오전 문인 북구청장과 공무원들이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 숲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도심 속 힐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북구, 11월까지 영산강변 환경정비사업

광주시 북구가 영산강변을 새단장해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든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영산강변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 관내 영산강변에 다채로운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영산강변은 2008년 조성된 산동교 친수공원을 중심으로 유채·물억새·코스모스·습지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자생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케이트볼장·축구장 등 체육·편의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지

만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이달 중 영전동 용산마을·대촌동 드론비행연습장·연제동 거점이 쉼터·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 일대 등 영산강변 주요 둔치에 생태계 교란종(쇠뇌물 등)을 제거하고, 꽃과 다양한 수목을 심는다. 하천 경관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매년 다양한 초목을 식재해 영산강변을 북구의 대표적인 내들이 장소로 탈바꿈시켜나갈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